

아이큐 (IQ)

C. 키스라는 심리학자는 역사적 인물들 가운데 특히 천재적인 재질을 보인 사람들의 아이큐를 간접으로 추산해 본 결과, 철학자 존 스튜어드 밀은 200, 시인 괴테는 190,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은 180, 음악가 베토벤은 165, 정보자 나폴레옹은 140, 미국 초대 대통령 조지 워싱턴은 130이라고 했다. 그러나 아이큐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훌륭한 업적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그것을 루이스 터먼이 밝혀냈다. 터먼은 천재아 4,000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 아이큐 170 이상의 천재는 대부분 정신질환 증세에 다 사회 적응도가 떨어지는데 비해 아이큐 120~150정도의 사람들은 특정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는 사실을 알아냈던 것이다. 그는 아이큐가 높은 사람

은 낮은 사람보다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음도 밝혀냈다.

아이큐(IQ)라는 말로 더 잘 알려진 지능지수(知能指數)란 한마디로 정신연령과 생활 연령의 비율을 말한다. 한 개인의 생활 연령을 정신 연령과 대비시켜, 만일 생활 연령이 정신 연령보다 앞서 있으면 그의 지능은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대로 생활 연령이 정신 연령을 앞서 있으면 그의 지능은 낮은 편이다. 편의상 100을 기준으로 지능의 상하를 구분한다. 이 개념을 고안해낸 사람은 독일의 심리학자 빌헬름 슈테른이지만, 이를 보편화시킨 사람은 미국의 심리학자 루이스 터먼이다. 그는 100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제시해 그것이 오늘날까지 적용되고 있다. ≡

달 갈

달갈은 예부터 풍부한 영양 식품으로 널리 식용되었다. 신라 고분에서 토기에 넣어 둔 달갈이 출토된 것으로 미루어

우리나라에서도 오래 전부터 식용된 것으로 보이지만, 고려 이전의 문헌이나 자료에는 달갈 요리법이 나타나지 않고

조선시대의 요리서에 비로소 보이기 시작한다. 서양에서는 달걀을 먹고난 후에 그 껍질을 깨는 관습이 예부터 전해온다. 고대 로마인들은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다. 달걀은 신비롭고도 성스러운 사물이었다. 특히 달걀 속껍질은 어떤 특별한 것을 보호하는 외경스러움으로 인식되었다. 로마 사람들은 달걀을 깨뜨리면, 껍질 안쪽에서 요술쟁이들이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에 빠졌다.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달걀을 깨자마자 껍질을 부숨으로 써 아무 것도 살아남지 못하게 했다. 이런 행동이 점차 관습화되어 근대까지도 그 풍습을 좇게되었다. 반면 온전한 달걀은 길조를 뜻하였다. 아우구스투스의 딸 줄리아는 티베리우스의 아이를 임신을 했을 때 매우 아들을 낳고 싶어하였다. 그녀는 그 소망을 이루고자 달걀 하나를 가슴에 품어 따뜻하게 하였다. 과연 달걀의 효력이었는지 그녀는 아들을 낳았고, 달걀에서는 숫병아리를 얻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를 발견하고 돌아왔을때 국민들은 열렬히 그를 환영했다. 그러나 질투에 가득찬 몇몇 사람이 서쪽으로 방향을 튼 것만 새로운 뿐 대륙의 발견은 우연한 일이라고 평가 절하하자 콜럼버스는 “그건 그렇다. 다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하였다는 것을 공로라고 생각할 뿐이다”라고 맞받았다. 그리고는 테이블 위에 있는 달걀을 들어 이것을 세워 보라고 말했다. 그들은 여러 방법으로 애를 썼지만 아무도 세우지 못했다. 콜럼버스는 달걀 끝을 가볍게 깬 뒤 쉽게 세웠다. 그들은 어이없어 말했다. “그렇게 하면 누구든지 할 수 있다”콜럼버스는 “물론 아무 것도 아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이 방법을 생각못했고 나는 그것을 알았다. 신세계의 발견도 이와 마찬가지로. 알고 보면 보통인 일이라도 맨 먼저 생각해냈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대답해 그들을 은근하게 나무랐다. ≡